

# 가족친화환경 측면에서 본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

Men's Father-role in the Context of Family Friendly Environment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고선강\*\*\*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 교수 박정윤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 교수 권혜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외래강사 김유경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수 진미정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 Ko, Seonkang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ocioate Professor:* Park, Jungyun

Dept. of Child Studies, Nasaret Univ.

*Assistant Prof.:* Kwon, Hyejin

Dept. of Consumer Sciencies, SNU

*Lecture:* Kim, Yukyoun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SNU

*Associate Prof.:* Jin, Mijeong

---

\* 본 연구는 2010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한 '남성 대상 가족친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음.

\*\* 주저자: 송혜림(hrsong@ulsan.ac.kr)

\*\*\*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ther-role in the context of Family-Friendly-Environment and to give the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father-role and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Through the survey in February and March 2010 the data from 973 cases was collected. As a research method the frequency, percent proportion, mean, X<sup>2</sup> and Anova were used. From the data 'friendly father' was found as the most preferred father role. And we found the context of father-role was varied with the stage of children's age group. Also the need for the family-friendly program of Healthy-Families-Center was founded. This result was to be applicated for the educational program for fathers. So we proposed the educational program for the father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focused on the friendly father-role. In order to perform the friendly father role, more concret information and specific contents have to be developed.

**Key Words** : 아버지역할(Father Role), 가족친화환경(Family Friendly Environment), 부성연구(Study for Fathering), 아버지교육 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 for Father Role)

I. 서론

최근 들어 가족친화문화조성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아젠다와 제도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가족친화정책은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들로서, 예컨대 적절한 가족자원(부모역할을 위한 소득,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여 아동발달을 지원하거나. 부모들로 하여금 일과 양육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용이하게 한다든지, 고용기회에서의 성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ECD, 2002 - 홍승아, 류연규, 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송다영, 2008 재인용).

또한 가족친화문화조성은 일-가정 양립과 연계되어 더욱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표는 남녀 모두의 가족권과 노동권의 조화이며, 그 추진과제로서 남성의 노동시간의 일정부분을 가정으로 이전하여 가족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 등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http://www.moel.go.kr)). 따라서 남성의 경우 가족권의 강화, 여성의 경우 노동권의 강화를 통해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직장 영역에서의 가족친화적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문화의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 서비스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특히 '남

성'에 대해 주목하게 된 바, 이는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히 남성이 아버지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하는 여성'을 집중적인 타겟으로 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결국 남성의 가족생활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아버지역할'에 주목하여 아버지역할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기혼남성들의 아버지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아버지역할의 실태를 바탕으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가족친화문화조성의 맥락에서 남성의 가족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남성에 초점을 둔 배경으로는 먼저,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함께 제기된 이중노동부담의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여성취업률 50%라는 통계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지난 30년동안 우리 나라 취업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소위 생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M-curve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여성의 취업률은 상승되었으나 가족돌봄은 여전히 여성이 수행하는 불평등한 역할분담체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직업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는 단지 여성만의 일-가정 균형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남성들 역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가족생활 참여가

증진되고, 가족역할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의 일-가정 균형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가족역할 회복은 단지 기혼 여성의 중단 없는 생애노동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성 자신에게도 아버지역할은 정체감과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버지역할은 자녀에게 그리고 한 가정의 일상적인 건강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부성, '아버지됨' 그리고 아버지역할은 남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가족정책의 주요 아젠다인 일-가정 균형이나 가족친화문화조성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일상의 안전과 즐거움 그리고 여유, 일과 여가의 조화를 꿈꾸는 사회로 재편되는 중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가족권(부모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장치들 예컨대, 부모휴가, 모성보호,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제, 퍼플잡(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유연근무제도)은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직장생활을 구조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모역할과 가정생활, 여가, 개인적 자아실현 등을 노동생활과 조화롭게 영위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송혜림, 박정윤, 고신강, 권혜진, 김유경, 진미정, 2010). 이는 특히 일-가정 양립 혹은 일-생활의 균형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 크다는 인식에 기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들도 이제 가족으로 돌아오고,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를 위해 아버지교육도

필요하고, 가족친화문화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일하는 아빠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서비스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의 가족참여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특히 아버지역할에 초점을 두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아버지역할의 향상과 부모자녀관계의 개선, 일-가정의 균형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문화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함께 제안함으로써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의 973명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자녀와의 갈등 정도와 내용, 아버지역할 효능감과 만족도, 일-가정 양립의 정도와 장애요인, 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부성연구의 경향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아버지역할과 관련하여 부성연구의 경향을 보면, 서구의 경우 우선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에 집중되어 왔고, 그것은 아버지의 존재여부로부터 시작된다(Adamsons & Buehler, 2007: 272-273). 최근 아버지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라 성별관계와 성역할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1900년부터 1989년까지 대중잡지에 나타난 부성 이미지에 관한 한 연구는 아버지의 역할이 1900년대 초 가정과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에서 1980년대 말에 오면 아이들에 대한 매일의 돌봄 역할로

변화되어 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Akinson, 1993: 975-976). 이것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산되면서 아버지도 단순한 생계부양자로부터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부성연구의 경우,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념과 관련하여, 아버지 역할을 생계 책임자와 양육적 아버지로 나눈 연구(이숙현, 2001)로부터, 아버지 역할을 자녀의 발달적지지, 자녀돌보기, 자녀와 함께 하기, 학부모 역할 수행, 자원제공자로서 책임감 지각으로 나누는 연구도 있다(이영환, 2001). 또 다른 연구는 아버지 역할을 경제적 부양자, 대화상대자, 가정의 통솔자 및 합리적 판단자로 나누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한편 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를 통해 한국 사회 부성의 구조를 포착한 구슬 생애사 연구(정진성, 2009)에서는, 여성(전 연령층)들에게서 보편적 부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부성의 광범위한 혹은 보편적 존재성이다. 여성들 대부분이 단지 생계부양과 같은 도구적 역할을 넘어서는, 훈육과 교육, 결혼에 개입하는 양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단지 도구적 부성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오히려 생계부양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여러 정서적, 양육적 역할을 한 아버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부성 없는 부모됨(parenting without fathering)이나 전통적 부성-새로운 부성의 이분법, 그리고 사회변화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부성의 명제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서구의 이론이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회에 적용되는데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정진성, 2009).

## 2. 아버지역할과 양육참여

보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아버지역할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영환(2001)의 연구에서는 자녀(3-6세)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버지 대상으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과 양육방식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한국의 아버지는 미국아버지보다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 돌보기, 자녀와 함께 하기 등 양육참여를 많이 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아버지가 미국 아버지 보다 통제점수가 높은 반면 온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아버지가 한국아버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양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엄부라는 전통적인 아버지 모습이 오늘날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역할의 변화를 포착한 연구들도 있는데, 현대의 아버지들에게서 발견되는 변화로서, 직장 위주의 삶보다는 가족에게서 심리적 만족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 것(안신호, 1997), 경제적 부양자에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며(이숙현, 1995; 한경혜, 1995)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진희, 2004).

남성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대한 연구(서혜영, 이숙현, 1999)에서, 조사대상 아버지들은 부모역할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인 의무에서 벗어나 단시간 자녀와 놀아주는 형태로 양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고 만족감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김희숙, 1995 - 서혜영 외, 1999 재인용)는 해석도 가능하고, 아버지는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적고 부모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로서 적합

한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적고 자신의 유능성을 판단할 준거도 부족하다(Schafer & Bratio, 1979 - 서혜영 외, 1999 재인용)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아버지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들(Jain, A, Belsky, J. & Cmic, K., 1996; Pruett, 2000)에서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할 수 있는데, 모델링 패러다임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받았던 아버지역할의 장점을 모방하여 현재의 자녀양육을 한다는 것이고, 재구성 패러다임은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이후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보상하기 위해 반대되는 방식, 즉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자녀양육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이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남성의 아버지 역할 재구성이 여성의 어머니 역할 재구정보다 수월한바, 어머니노릇에 비해 아버지 노릇은 개인 및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Jain, A, Belsky, J. & Cmic, K., 1996; Pruett, 2000).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김희화(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2학년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왔다. 즉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여학생이, 그리고 정보제공, 전통전수, 학업지원 등과 영역에서는 남학생이 보다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중의 경우 훈육과 관련되고 주말의 경우 여가생활, 학업지원, 훈육,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접촉이 지속적인 청소년이 아버지와 여가생활, 일상생활, 정보제공, 훈육 영역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5일 근무 아

버지가 양육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의 전 영역이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절대적인 시간량이 중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3. 아버지역할과 일-가정 간의 갈등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은, 일 중심의 생활을 내면화시켜 온 남성들에게 일-가정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30대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아버지역할 갈등을 조사한 연구(서혜영 외, 1999)에 따르면, 일-가족 갈등요인으로 근무시간, 초과근무빈도, 직장의 융통성 등 주로 직장 특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인의 역할기대수준에 따른 아버지 역할 만족도 및 유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외부의 평가나 기대와 관계없이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부모로서 느끼는 유능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대부분이 바람직한 아버지 상과 자신의 실제행동 간의 괴리를 느끼고 갈등을 경험한다는(한경혜, 1997)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일-가족 갈등과 아버지역할 수행만족도에 대한 연구(이숙현, 1996)에서는 일로 인해 가족역할 수행에 지장을 많이 경험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으로써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일-가정 역할갈등수준 높을수록 부모역할 만족도 및 유능감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다(서혜영 외, 1999;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600명 이상의 아버지 대상 연구를 보면, 직업역할에 의한 가족역할의 심리적 갈등은 양육참여를 방해하고, 가족역할이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은 상호적으로 유아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관련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정순, 조희숙, 2005).

한편 일-아버지 역할 갈등은 사회의 경제사정에 민감한 변인이어서 호황기에는 가족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일-가족 갈등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불황 때는 생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버지의 가족 참여 욕구가 억제된다고 하는데(Nickols, 1994-서혜영 외, 1999 재인용), 그런 맥락에서 경제적으로 위기였던 우리나라 IMF 시기, 일-아버지 역할 갈등이 높지 않게 나온 결과는 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서혜영 외, 1999).

그 외,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연구한 결과(홍길희, 황정혜, 2006)를 보면, 아버지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높게 나타났고,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의 철학, 신념, 자녀의 정서적, 사회성 관련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딸을 가진 아버지들의 교육요구가 더 높는데 이는 이성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장 위주의 삶보다는 가족에게서 심리적 만족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 연구결과(안신호, 1997)와 함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부양자에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이숙현, 1995; 한경혜, 1995),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진희, 2004)는 결과도 있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버지역할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가족친화문화조성을 위한 아버지교육프로그램 개발에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버지

를 대상으로 도구화된 설문지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첫 자녀를 둔 아버지로 선정하였으며, 조사 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문항에 대한 답변의 중복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첫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바 아버지역할 수행실태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이 주중, 주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및 함께 하는 활동은 어떠한가? 자녀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자녀와의 갈등 정도 및 내용은 어떠한가? 자녀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의 아버지역할 효능감, 만족도, 평가는 어떠한가? 자녀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좋은 아버지상은 어떠한가?

다섯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의 일-가정 균형의 정도는 어떠한가? 장애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섯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아버지역할 수행기간 그리고 아버지역할-직장성공 간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일곱째, 조사대상 아버지들이 요구하는 아버지역할 수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해, 설문지의 문항은 대상자의 인적사항 외에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와 인식 그리고 요구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중, 주말 아버지의 자녀돌봄 참여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한 활동은 자녀와 아침 혹은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다, 자녀와 TV를 보았다, 자녀와 야외활동을 같이 하였다,

자녀와 전화통화/문자를 하였다, 자녀의 등학교(원)를 도와주었다, 자녀의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숙제를 도와주었다, 자녀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훈계를 하였다, 자녀와 쇼핑을 같이 하였다, 집에서 놀아주었다, 씻겨주거나 재워주었다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1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적 없음, 1-2회, 3-4회, 거의 매일 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와의 갈등 정도와 요인은 일상생활습관, 학업 및 학교생활, 친구관계, 여가생활, 통신기기사용, 외모관리, 언어습관, 금전관리, 자녀와의 성격차이 등 9개 생활영역 및 내용 중 우선순위로 1개를 선택하게 하였고, 그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갈등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 없음(0점), 갈등 매우 높음(9점) 사이의 점수를 표기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역할 평가는, 김진희(2004)의 연구와 한국여성개발원(1995)에서 사용한 척도를 재구성하여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의논상대가 된다, 친구이름 세 명 이상 말할 수 있다, 자녀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TV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사교육의 숫자, 내용을 알고 있다, 문제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를 5점 리커트 척도로 물어보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역할 평가를 긍정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Cronbach's Alpha로 구한 신뢰도는 0.88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역할 효능감과 관련하여, 역할 효능감은 자아 효능감 개념을 자녀 양육의 차원에 적용한 것으로,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한유미, 2003). 아버지역할 효능감 문항은 김진희(2004), 한유진(2003)의 역할 효능감 척도를 재구성하여, 나는 좋은 아버지이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다,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자와 의견이 잘 맞는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등 4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

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신뢰도 점수는 0.8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역할 만족도는 만족 정도를 5점 리커트 점수로 표시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아버지상과 관련하여 한국여성개발원(1995)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 가장으로서 위엄을 갖춘 아버지 중에서 1순위를 선택하게 하였다.

한편, 일-가정 균형의 정도는 개인이 직장가정의 역할에 동등하게 몰입하는 정도 또는 동등하게 만족하는 정도(정영금, 2007)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숙현(1996), 서혜영 외(1999)의 연구에서 적용한 일-가정 균형 및 일-가정 갈등 문항을 재구성하여, 가족행사 참석, 가족여가시간 부족, 가족의 불평, 업무 지장, 대화의 편리함, 일의 우선순위, 집안일에 대해 잘 모름, 심리적 편안함, 소외감, 의견 존중, 식구들의 환영 등 11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균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0.85로 나타났다. 일-가정 균형의 장애요인은 예비조사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경제적 형편, 직장 스트레스, 장시간 근로,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자녀들의 시간 부족, 배우자의 비협조, 부부 불화, 역할모델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름 등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게 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는 0.87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역할 수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정책, 가족생활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예비조사는 2010년 1월에 1차 설문지를 개발한 다음 60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조사는 2010년 2월-3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서울/경기지역 480부, 충청지역 210부, 경상지역 210부, 호남지역 160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자료는 서울/경기지역 443부, 충청지역 198부, 경상지역 202부, 호남지역 130부이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973부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X2 검증, 분산분석분석을 사용하였다. 자녀의 연령별로 영유아기, 아동기(초등학생), 청소년기(중고등학생)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통해 자녀발달단계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버지역할 실태와 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55.8%로 가장 많았으며, 20-30대가 38.7%, 50대가 5.5%였다.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자가 60.9%였으며 고졸자가 22.9%, 대학원졸업자가 16.2%로 나타났다. 결혼지위는 유배우자가 94.3%, 무배우자가 3.7%로 차지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사이가 24.6%, 300-400만원대가 24.4%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0-500만원대가 20.9%, 500만원 이상이 18.4%, 200만원 미만 이 11.6%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직종으로는 관리/사무직이 42.2%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직이 21.9%, 전문/경영직이 17.1%, 기타가 12.8%, 단순/노무직이 6.0%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73)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30대	370	38.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1	11.6
	40대	533	55.8		200-300만원	235	24.6
	50대	53	5.5		300-400만원	233	24.4
	총계	956	100.0		400-500만원	199	20.9
					500만원 이상	176	18.4
학력	고졸이하	220	22.9	직종	전문/경영직	163	17.1
	대졸	586	60.9		관리/사무직	403	42.2
	대학원	156	16.2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209	21.9
	총계	962	100.0		기타	122	12.8
			총계		973	100.0	
결혼지위	유배우	920	94.3				
	무배우	36	3.7				
	총계	956	100.0				

2. 아버지역할의 일반적인 실태

먼저, 조사대상 아버지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버지와 자녀가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평일은 1시간 50분(표준편차 1.37)이었고, 주말은 6시간 5분(표준편차 5.37)으로 나타나, 주중보다는 주말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들이 인식하는 자녀와의 갈등정도를 살펴보면 10점 리커트 척도 중 3.09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자녀들과 갈등을 느끼지 않

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자녀와의 갈등인식을 자녀연령별로 구별하여 분석해 보았다. 자녀연령별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평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말의 경우 자녀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영아유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8시간 13분을, 중고등생 자녀를 둔 아버지는 4시간 43분을 함께 하고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연령별 아버지와 자녀 간 갈등 차

〈표 2〉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과 자녀와의 갈등 인식정도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하루 평균)	평일	1시간50분	1.37
	주말	6시간05분	5.37
자녀와의 갈등(10점 만점)		3.09	2.15

〈표 3〉 자녀연령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및 자녀와의 갈등 인식 정도

문항	첫째자녀 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평일)	2시간15분 a	1시간48분 b	1시간34분 b	18.975***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주말)	8시간13분 a	6시간13분 b	4시간43분 c	31.461***
자녀와의 갈등	2.08 a	2.99 b	3.79 c	51.976***

주: a, b, c는 집단간 차이를 Scheffe검정 95% 신뢰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집단을 표시한 기호임.

\* p<0.05 \*\*p<0.01 \*\*\*p<0.001

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갈등도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갈등

은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자녀와의 소통시간 부족의 문제에 주목해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을 때 상호작용의 질과 내용도 약화될 수 밖

〈표 4〉 자녀연령대별 자녀와의 갈등영역

(단위: 빈도)

	전체	자녀연령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일상생활습관 (식습관, 수면습관, 청결관리)	569	153	207	209
여가생활 (TV/컴퓨터 등)	359	65	136	158
학업 및 학교생활 (공부, 성적, 교사와의 관계)	284	18	101	165
언어습관 (말투, 욕설 사용 등)	274	282	102	90
통신기기 사용 (핸드폰, 인터넷 등)	187	18	59	110
자녀와의 성격차이 (기질 차이)	176	50	59	67
외모관리 (복장/각종 치장 등)	92	3	31	58
금전관리 (용돈/지출/저금 등)	74	6	20	48
친구관계 (동성친구, 이성친구 관계 등)	65	6	27	32

\* 복수응답

에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안 뿐 아니라 소통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버지들이 느끼는 자녀와의 갈등영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녀와 가장 갈등을 느끼는 영역은 일상생활습관, 여가생활, 학업 및 학교생활, 언어습관, 통신기기 사용, 자녀와의 성격차이, 외모관리, 금전관리, 친구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녀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언어습관이, 초중고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일상생활이 1순위의 갈등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습관이나 언어, 방과 후의 여가생활, 학습과 공부 등이 자녀와의 갈등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분히 아버지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아버지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녀와의 갈등원인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을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다.

자녀연령대별로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1주

일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야외활동, 전화통화 및 문자, 자녀 책 읽어주기나 공부 봐주기, 집에서 놀아주기, 씻겨주기나 재워주기에서 참여빈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자녀와의 야외활동은 중고생 자녀의 아버지는 한 적 없음이 절반 가까이(47.0%) 되는 반면,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는 한 적 없음은 18.3%에 불과하며 주 1-2회가 68.5%이고 거의 매일하는 경우도 5.5%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전화통화나 문자의 경우에는 영유아기 자녀의 아버지는 한 적 없음이 29.8%로 초등학교생이나 중학교생의 아버지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영유아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된 차이로 보인다. 자녀의 책 읽어주기나 공부 및 숙제 도와주기는 영유아기 자녀나 초등학교생 자녀의 아버지는 주 1-2나 주 3-4회가 각각 70.4%, 64.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영유아기 자녀 아버지 경우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도 13.6%인 반면, 중고생 아버지의 58.6%가 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영유아나 초등학교생인 경우 책임기나 공부봐주기는 아버지들이 많이 참여하고 참여하기에 적합하기도 한 활동이지만, 자녀가 중학교생이 되면 부모가 공부를 봐주기 어려워며 사춘기에 이르러 부모의

<표 5> 자녀연령대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단위: 빈도(%))

변수	자녀연령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자녀와 아침 혹은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한 적 없음	18(7.4)	13(4.1)	23(6.5)
	1-2번	72(29.8)	87(27.7)	112(31.7)
	3-4번	66(27.3)	81(25.8)	78(22.1)
	거의 매일	86(35.5)	133(42.4)	140(39.7)
	$\chi^2$			7.104
자녀와 같이 TV를 보았다	한 적 없음	24(10.4)	20(6.6)	32(9.4)
	1-2번	82(35.5)	121(39.7)	141(41.6)
	3-4번	63(27.3)	84(27.5)	92(27.1)
	거의 매일	62(26.8)	80(26.2)	74(21.8)
	$\chi^2$			5.757

〈표 5〉 계속

자녀와 야외활동을 같이 하였다	한 적 없음	43(18.3)	81(26.3)	158(47.0)
	1-2번	161(68.5)	183(59.4)	157(46.7)
	3-4번	18(7.7)	32(10.4)	14(4.2)
	거의 매일	13(5.5)	12(3.9)	7(2.1)
	$\chi^2$			65.724**
자녀와 전화 통화나 문자를 하였다	한 적 없음	61(29.8)	51(16.8)	55(16.1)
	1-2번	62(30.2)	116(38.2)	149(43.6)
	3-4번	41(20.0)	71(23.4)	76(22.1)
	거의 매일	41(20.0)	66(21.7)	62(18.1)
	$\chi^2$			21.768*
자녀의 등하교(원)을 도와주었다	한 적 없음	95(49.2)	134(43.8)	155(47.0)
	1-2번	46(23.8)	98(32.0)	102(30.9)
	3-4번	18(9.3)	22(7.2)	30(9.1)
	거의 매일	34(17.6)	52(17.0)	43(13.)
	$\chi^2$			6.960
자녀의 책을 읽어주거나 공부/숙제를 도와주었다	한 적 없음	40(17.0)	89(28.6)	188(58.6)
	1-2번	108(46.0)	151(48.6)	96(29.9)
	3-4번	55(23.4)	50(16.1)	30(9.3)
	거의 매일	32(13.6)	21(6.8)	7(2.2)
	$\chi^2$			130.775***
자녀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훈계를 하였다	한 적 없음	49(21.6)	54(17.0)	73(21.7)
	1-2번	127(55.9)	188(59.3)	211(59.7)
	3-4번	32(14.1)	51(16.1)	42(12.5)
	거의 매일	19(8.4)	24(7.6)	11(3.3)
	$\chi^2$			12.132
자녀와 쇼핑을 같이 하였다	한 적 없음	39(16.5)	83(26.3)	130(39.3)
	1-2번	175(74.2)	200(63.5)	178(53.8)
	3-4번	17(7.2)	25(7.9)	19(5.7)
	거의 매일	5(2.1)	7(2.2)	4(1.2)
	$\chi^2$			37.218
자녀와 집에서 놀아주었다	한 적 없음	13(5.2)	70(22.4)	162(49.5)
	1-2번	110(43.8)	166(53.0)	129(39.4)
	3-4번	71(28.3)	52(16.6)	29(8.9)
	거의 매일	57(22.7)	25(8.0)	7(2.1)
	$\chi^2$			206.474***
자녀를 씻겨주거나 재워주었다	한 적 없음	35(14.0)	103(33.2)	205(67.4)
	1-2번	116(46.4)	126(40.6)	71(23.4)
	3-4번	54(21.6)	49(15.8)	21(6.9)
	거의 매일	45(18.0)	32(10.3)	7(2.3)
	$\chi^2$			182.777***

간섭을 원치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는 많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와 집에서 놀아주기 역시 자녀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 1주일에 1-2번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기 자녀를 둔 경우 한 적 없음의 응답비율이 제일 높다. 거의 매일 한다는 비율은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어, 자녀와 집에서 놀아주기는 자녀 연령이 어릴 경우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 씻겨주기나 재워주기는 활동의 특성상 자녀가 어린 경우에 한정되는 활동이므로 결과 역시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에도 주 1-2회가 40.6%, 주 2-3회 15.8%, 거의 매일도 10.3% 이루어지나 중고생 자녀 아버지의 경우에는 한 적 없음이 67.4%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자녀와 함께 한 활동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그 특성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 6>에 따르면 아버지역할 수행의 장애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무가 1순위로 나타났다으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형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가족적 요인보다는 직장 요소가 더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버지는 직장에서 보내는 물리적인 시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서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이나 배우자의 협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된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역할수행이 있어서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통제받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 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가

<표 6> 아버지역할수행의 장애요인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역할 장애	경제적 형편	2.92	1.02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3.08	.97
	장시간 근무	3.18	1.06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2.59	.91
	자녀들의 시간 부족	2.84	1.00
	배우자의 비협조	2.39	1.03
	부부 불화	2.35	1.14
	역할모델이 없어서	2.41	.95
	필요를 못 느껴서	2.25	.95

족친화적 분위기나 여건 조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실제 이용율과 체감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함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3.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과 평가

위와 같은 실태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먼저 아버지역할에 대한 평가는 아래 표와 같다.

자신의 아버지역할에 대한 평가는 총점 30점 만점에 26.71점으로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 평균을 비교하면, 아버지들은 ‘자녀의 사교육 숫자와 내용을 알고 있음’의 문항에 있어 평균이 4.26점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3.89점, ‘좋아하는 연

〈표 7〉 아버지 역할 평가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역할 평가	26.71	7.68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음	3.89	.96
의논상대가 됨	3.79	1.49
자녀 친구이름 세 명 이상 댐	3.66	1.77
좋아하는 연예인/TV프로를 알고 있음	3.87	1.57
사교육 숫자와 내용을 알고 있음	4.26	1.40
자녀 문제나 고민을 알고 있음	3.65	1.61

예인/TV 프로를 알고 있다'가 3.87점으로 다음 순서를 차지하였다. 반면 '자녀의 친구이름을 댐 수 있다' '자녀의 의논상대가 되거나 자녀의 문제가 고민을 알고 있다'의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나타내어, 자녀와의 관계에서 표면적으로는 원만하지만 깊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는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연령대별 아버지역할 평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 자녀연령별 아버지 역할평가

문항	첫째자녀 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아버지역할 평가	31.80	25.63	24.27	90.092***
	a	b	b	

\* p<0.05 \*\* p<0.01 \*\*\* p<0.001

자녀연령별 아버지 역할 평가의 집단비교를 한 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평균이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높았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에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및 자녀와의 갈등 정도에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자녀 연령이 높을 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갈등은 많아지며 아버지역할 평가 역시 낮아진다는 것으로,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아버지역할의 기회가 줄어들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버지역할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표 9와 같다.

〈표 9〉 아버지역할 만족도와 효능감

아버지역할 만족도	5.65	1.87
아버지역할 효능감	13.42	2.65
아버지역할을 잘 하고 있음	3.23	.79
아버지 역할이 즐거움	3.55	.81
아버지 역할에 자부심을 느낌	3.56	.81
아버지역할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3.13	.86

아버지 역할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65점으로 나타나 현재 아버지역할에 대해서 중간 정도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아버지 역할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문항의 평균이 20점 만점에 13.4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아버지 역할수행에 자신감

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문항별 평균을 비교하면, ‘아버지 역할에 자부심을 느낌’이 3.56점, ‘아버지 역할이 즐겁다’가 3.55점으로 비슷하였다. 이로써 조사대상자 아버지들은 자신이 아버지임이 자랑스럽고 즐거운 역할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런 한편에 ‘아버지 역할을 잘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라든가, ‘아버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라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좋은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처럼 아버지가 규범적이 의무만으로 점철되는 역할에 제한되기보다는 스스로 즐기자 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생각들은 많지만 실제적인 방법은 잘 모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자녀연령별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10〉 자녀연령별 아버지역할 만족도와 효능감의 차이

문항	첫째자녀 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아버지역할 만족도	5.88	5.58	5.54	2.658
아버지역할 효능감	13.88	13.46	13.13	6.008**
	a	a b	b	

\* p<0.05 \*\* p<0.01 \*\*\* p<0.001

자녀연령별 아버지 역할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 역할 효능감에서는 차이를 보여,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효능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아버지역할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그리고 효능감을 종합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역할 평가 점수와 만족도 그리고 효능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초등학교생이나 중고등생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효능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든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발달연령에 맞는 새로운 아버지 역할로의 전환이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자의식이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역할전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서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고등학생기의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세대차, 교육현실 등으로 인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 등에 직면하여, 이로써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갈등은 높아지고 아버지역할평가도 낮아진다는 앞의 결과를 적용할 때, 함께 하는 상호작용의 절대적 총량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아버지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연령에 따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자녀발달연령을 고려한 맞춤형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

한편,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인식을 보면 50점 만점에 평균 24.88점으로 나와, 일-가정 갈등이 그리 높지도 또 낮지도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

항 목	평균	표준편차
계	24.88	6.53
직장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석 못함	2.88	1.05
일 때문에 가족여가시간이 부족함	3.14	1.07
일 때문에 가족에 무관심하단 불평 들음	2.78	1.05
동료와 대화가 가족과 대화보다 편함	2.44	.97
직장-가정 간 갈등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함	2.40	.97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름	2.38	.91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것이 편함	2.23	.93
집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임	2.21	.89
집에서 내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음	2.10	.86
집에 돌아올때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줌	2.12	1.05

‘일 때문에 가족 여가시간이 부족함’이 1순위로 나타나, 아버지들은 직장일로 인해서 가족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석하지 못함(2.88)’, ‘일 때문에 가족에 무관심하단 불평 들음(2.78)’의 순으로 나타나, 아버지들의 직장생활은 가족들 간의 관계유지나 상호작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집에서 내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음(2.10)’, ‘집에 들어올 때 식구들이 반갑게 맞아줌(2.12)’의 문항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가정 내에서 남성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일-가정 갈등과 관련하여 직장일이 가족관계와 상호작용에 장애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위상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언제까지 해야 할 지를 물어본 결과 그리고 아버지역할과 직장성공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아버지 역할 기간과 아버지역할-직장 성공 중요성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역할 기간(년)	24.54	10.13
아버지역할-직장성공 간 상대적 중요도	4.32	1.41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24.54년이 나왔다. 이는 통례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기간 또는 성인으로서 독립하는 기간까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성인 초기까지로 인지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아버지로서의 부담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준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 역할과 직장성공 간의 중요성의 정도는 1-9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5점은 가정과 일이 똑같이 중요함, 5점 미만은 아버지역할/가족생활이 더 중요함, 5점 초과는 일 / 직장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석결과 4.32점으로 아버지역할이 직장성공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과가 아버지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3에 나와 있다.

**〈표 13〉 아버지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아버지역할-직장성공 간 상대적 중요도**

문항	아버지교육 참여여부		t
	참여한 적 없다 (N=715)	참여한 적 있다 (N=253)	
아버지역할- 직장성공 간 상대적 중요도	4.26	4.70	-3.417**

\*\* p<0.01

**〈표 14〉 자녀연령별로 아버지가 지각한 좋은 아버지상**

영역	전체	자녀연령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	484 53.0%	136 54.4%	175 55.6%	173 49.7%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버지	122 13.4%	35 14.0%	45 14.3%	42 12.1%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116 12.7%	27 10.8%	33 10.5%	56 16.1%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104 11.4%	34 13.6%	28 8.9%	42 12.1%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버지	62 6.8%	13 5.2%	28 8.9%	21 6.0%
가장으로서 위엄을 갖춘 아버지	25 2.7%	5 2.0%	6 1.9%	14 4.0%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아버지역할-직장성공 간 상대적 중요도에 차이를 보며, 아버지교육에 참여했던 아버지들이(4.26점) 참여한 적 없는 아버지들보다(4.70점) 아버지역할 또는 가족역할을 직업역할 또는 직장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표 14와 같이 자녀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집단의 아버지에게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가 1순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과거의 전통가족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 왔던 규범적이고 훈육적이며 위엄이 있는 아버지보다는 부드럽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정서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알아보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사례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을 긍정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를 자녀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표 15와 같다.

자녀연령대별로 아버지 관련 프로그램-아버지교육 또는 부모교육, 아버지 상담,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 가족 단위 봉사활동, 가족 단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 있어 모든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이 보통(3점) 이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에서만 자녀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첫 자녀가 영유아기인 아버지들이 첫 자녀가 중고생인 아버지보다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이 유의하게 높았

(표 15) 자녀연령대별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의향

문항	자녀연령			F
	영유아	초등생	중고생	
아버지교육 (부모교육)	3.40	3.24	3.27	1.997
아버지 상담	3.28	3.11	3.16	2.343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	4.01	3.89	3.77	5.489 **
	a	ab	b	
가족 단위 봉사활동 (캠프, 주말농장, 체험활동 등)	3.60	3.59	3.57	0.44
가족 단위 동아리 활동 (운동, 악기 연주, 취미활동 등)	3.65	3.58	3.52	1.574

\* p<0.05 \*\* p<0.01 \*\*\* p<0.001

다. 자녀가 어린 시기에 상대적으로 가족 여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학업에의 부담과 이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가족 단위 여가의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하지만 중고생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경우에도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장 참여 의향이 높은 아버지 관련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아버지역할 증진과 부모자녀관계 개선,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973명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와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역할 수행 실태와 인식은 자녀연령별로, 즉 영유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아버지들 간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고, 자녀와의 갈등은 높아지며, 아버지역할에

대한 평가, 만족도, 효능감 등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또한 아버지들이 원하는 좋은 아버지상은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로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과 아버지역할 수행의 장애요인은 직장의 요소가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은 가족친화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인하여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함의는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대두되는 ‘아버지교육의 필요성’,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한 지원’ 그리고 ‘자녀연령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교육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즉, 주관적인 아버지역할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는 높은 데 비하여 아버지역할 효능감에서 아버지역할을 잘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혹은 아버지역할 평가 세부 항목 중 자녀의 고민이나 문제를 알고 있음과 같은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 따라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대해 잘 알고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역

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버지들이 원하는 아버지상은 자녀연령에 상관없이 1순위가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아버지가 친구 같은 아버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방법론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버지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연령별로 다양한 내용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연령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의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줄어들고 갈등정도는 높아진다. 이와 함께 아버지역할 평가 점수와 효능감도 낮아진다. 즉,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적·질적 측면이 약화되며 아버지역할 수행의 기회가 줄어들고 갈등정도는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아버지역할 수행의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연령별 달라지는 아버지역할에 대한 이해 및 자녀와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동안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되어 왔던 아버지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된 바,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아버지역할을 포착하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데, 건강가정사업의 예방적 목표를 강조한다면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교육의 장기적 효과는 커질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다가오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아버지역할의 올바른 기대감 및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유아랑, 2010), 보편적으로 가족관계가 그러하듯이 초기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개선은 어려워질 수 있고, 따라서 자녀 영유아기 시절 아버지역할은 평생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 본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역할의 효능감이나 만족감은 낮아지고 갈등은 높아지는 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 대한 맞춤형의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필요도 있다.

둘째,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상의 변화 즉, 남성들 스스로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친구 같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아버지는 친밀함과 소통이라는 토대 하에(송혜림 외, 2010) 그 실제적인 모습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함께 놀아주는 아빠, 자녀를 이해하는 아빠,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아빠 등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보급하는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 지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 결과 아버지 역할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 역할을 잘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역할의 실천과 실행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활동과 경험담 나누기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교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버지역할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장시간 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 개인적으로 혹은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직장문화의 변화 및 가족친화적인 제도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직장의 가족친화문화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 뿐 아니라 그 운영체계에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직장들과 보다 활발히 연계되어 직장의 가족친화문화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필수사업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족친화문화조성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각 지역사회와 직장이 가족친화적인 토대를 갖추도록 하는 데 아버지교육은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지향적으로 아버지교육이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누구나 아버지교육에 수월하게 접근하며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를 기획,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집단도 더 많아져야 한다. 또한 인프라의 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업장,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아버지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김진희(2004). 아버지로써의 유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4(1), 89-114.

- 2) 김희화(2005). 아버지양육참여 실태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아동학회지 26(5), 311-330
- 3) 서혜영,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 4) 송혜림, 박정운, 고선강, 권혜진, 김유경, 진미정(2010). 아버지, 그 현실과 이상.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주최 2010년도 제 2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 5) 안신호(1997). 직장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 김명언, 박영석 (편). 한국 기업문화의 이해, 388-439.
- 6) 유아랑(2010).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7)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 세미나 자료집, 3-34.
- 8) 이숙현(1996). 남성, 여성의 일/가족 갈등. 성공논총 27(4), 367-400.
- 9) 이숙현(2001). 전문직 남성의 아버지 역할: 교수, 의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3(1), 31-50.
- 10)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2007). 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 11) 이영환(2001).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및 양육방식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과 미국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3(1), 139-151.
- 12) 이정순, 조희숙(2005).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이 유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9(2), 43-58.

- 13) 정영금(2007).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의 일-가정 균형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  
가족자원경영학회 제12차 학술대회자료집,  
5-24.
  - 14) 정진성(2009). 한국사회 부성의 구조-딸들  
이 기억하는 아버지. 페미니즘 연구 9(1),  
79-111.
  - 15)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  
생활.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  
지 세미나 자료집, 35-80.
  - 16) 한경혜(1997). 아버지 상의 변화. 여성한국  
사회연구회(편),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17) 한국여성개발원(1995). 부성계발에 관한 연구.
  - 18) 한유진(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  
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19) 홍길희, 황정혜(2006). 자녀양육스트레스 및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영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  
동학회지 27(3), 301-317.
  - 20) 홍승아, 류연규, 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송  
다영(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21) Adamsons, Kari and Cheryl Buehler(2007).  
Mothering versus Fathering versus Parenting:  
Measurement equivalence in parenting  
measure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July-September, 271-303.
  - 22) Akinson, Maxine P(1993). Fathering in the  
20th Centu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975-986.
  - 23) Jain, A, Belsky, J. & Cmiec, K.(1996).  
Beyond fathering behaviors: Types of da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31-  
442.
  - 24) Pruett K. D.(2000). Fathernee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The free press.
- 투 고 일 : 2010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0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1월 26일